2006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건축의 내재적인 조성을 알고 체험함

메시지 1

소개의 말—하나님의 건축의 내재적인 조성에 관한 중요한 것들

성경: 삼하7:12-14상, 16, 마16:18, 엡3:16-17상, 19하

I. 하나님의 건축의 내재적인 조성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우리의 눈에 발라야 한다—엡1:17-18, 계3:17-18.

A. 바울은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다—엡1:17-18.

1. 우리의 마음 눈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기능이다—행26:18.
2. 신성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열려진 영, 순수한 양심, 순수한 마음, 명철한 생각, 열렬한 감정, 순복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마5:3, 8, 히9:14, 10:22, 딤후1:7, 요14:21, 7:17.

B.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그분에게서 사서 우리 눈에 바르라고 충고하신다—계3:17-18.

1. 우리의 눈에 발라야 하는 안약은 분명 기름 바르시는 영,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 자신이시다—요일2:27, 고전15:45하.
2. 기름 바르시는 영으로 우리의 눈에 바르면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가질 것이다—고전2:10.
   a. 영적인 통찰력은 항상 그 영과 관련된다. 그 영을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처리할 수 없다—11-15절.
   b. 우리에게는 우리가 속에서부터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갖도록 우리의 속 존재의 깊은 곳에 기름 바르는 그 영이 필요하다—요일2:20.

II. 하나님의 건축의 내재적인 조성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열린 그릇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롬9:23, 고후4:7, 엡3:16-17상, 19하.

A. 주님은 우리가 항상 열려져 그분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릇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시다—19하.

1. 그릇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릇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될 것이다.
2. 우리는 우리의 보배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담는 긍휼의 그릇들이다—롬9:23, 고후4:7.
3.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열려 있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사시도록 하기를 원하신다—갈2:20.

B.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고전15:45하, 6:17, 딤후4:22상, 엡3:16-17상.

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의 속 존재의 각 부분을 차지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에 이르도록 충만될 것이다—19절 하.

III. 하나님의 건축의 내재적인 조성을 알고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는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골1:9.

A. 신약의 시작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다윗의 아들로 소개되셨다—마1:1, 9:27, 12:23, 15:22, 20:30-31, 21:9, 15, 22:42, 45.

1.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시다—계22:16.

2. 그리스도는 참 다윗이시다—마12:3-4.

a. 신언자들은 다윗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말했다—렘30:9, 겔34:23-24, 37:24-25, 호3:5, 암9:11.

b.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며, 다윗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가리킨다—삼하7:16.

B.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다윗 안으로 건축해 넣기를 원하셨다—2-3절, 12-14상, 16절.

C. 사무엘하 7장의 내재적인 의미는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밀어 넣으시어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만드시는 것에 관한 장이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에 밀어 넣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해야 한다—엡3:16-17상.

2.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건축해 넣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거처이자 또한 우리의 거처인 상호 거처가 될 것이다—엡3:16-17상.

3.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이나 일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건축하심에 의해 거처를 가지실 것이다—마16:18.

a.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오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시키심으로 교회를 건축하시고 우리의 혼 전체를 차지하실 것이다.

b. 결국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이 되실 것이다.

c.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을 하나의 실체로 연합시키시고 섞으시기 위해 그분의 신성을 우리의 인성 안으로 건축하시고 우리의 인성을 그분의 신성 안으로 건축하신다.

d. 궁극적으로 삼일 하나님과 구속된 인성이 연합되고 섞이고 건축되어 하나의 실체—새 예루살렘—가 될 것이다—계21:2.

© 2006 Living Stream Ministry